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
카라바조, 1601년
런던 내셔널 갤러리, 영국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루카 24,45-48)

[제1독서]..... 사도 3,13-15.17-19

[화답송] 시편 4,2.4.7.9
(◎ 7ㄷ)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 저희 위 - 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 - 서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제2독서]..... 1요한 2,1-5ㄱ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루카 24,35-4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30] 예수 부활하셨네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220] 생활한 제물
- 성체성가: [179] 주의 사랑 전하리
[344] 영성체
- 파견성가: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³⁵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³⁶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³⁷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³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³⁹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드시피 살과 뼈가 있다.”

⁴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⁴¹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⁴²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⁴³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⁴⁴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⁴⁵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⁴⁶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⁴⁷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⁴⁸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The two disciples recounted what had taken place on the way,
and how Jesus was made known to them in the breaking of bread.

While they were still speaking about this, he stood in their midst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But they were startled and terrified and thought that they were seeing a ghost.

Then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roubled? And why do questions arise in your hearts? Look at my hands and my feet, that it is I myself.

Touch me and see, because a ghos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can see I have.”

And as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feet.

While they were still incredulous for joy and were amazed,

he asked them, “Have you anything here to eat?”

They gave him a piece of baked fish; he took it and ate it in front of them.

He said to them,

“These are my words that I spoke to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that everything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and in the prophets and psalms must be fulfilled.”

Then he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And he said to them,

“Thus it is written that the Christ would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that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would be preached in his name
to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묵상

성경에서 죄는 윤리적인 잘못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하느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느님 안에 살게 되고,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느님과 단절된 채 탐욕의 자아 안에 머물 때 죄에 빠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이르는 모든 일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느님의 섭리임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하신 수난 예고와 부활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세상의 악에 대한 승리가 선포되고, 죄의 용서가 선포되었음을 믿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시고,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시기까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파스카 신비의 증인들로 파견되었습니다. 구원은 생각이나 상상만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는 회심의 체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죄도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하느님 없이 사는 우리 삶을 하느님께 되돌리는 회심임을 잊지 맙시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그리스도의 증언자

성 베드로, 마르타,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레오나르도

르네상스 3대 천재에 가려진 16세기 북부 이탈리아의 대가 안토니오 알레그리 다 코레지오(Italian, Antonio Allegri da Correggio 1489~1534)의 '성 베드로, 마르타,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레오나르도 Saints Peter, Martha, Mary Magdalen and Leonard or Four Saints'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애장품이다. 코레지오는 고향 마을의 성녀 마르타에게 봉헌한 작은 교회의 제단화를 위임받는데, 교회의 후원자는 가문과 관련된 네 명의 성인을 지정하여 주문하였다. 베네치아 화풍의 화려한 빛과 색채는 에미리아 파의 감미로움과 활기가 가미되며 서정적이고 환상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 성인들의 양감과 강조된 운동감은 르네상스가 발명한 화법인 단축법의 결과이다. 관람객은 압도적인 크기의 그림 앞에서, 복숭아 빛 피부의 생기 넘치는 인물들이 서로 교감하는 분위기와 선명하게 부각된 상징적 지물로 성인임을 감지한다.

백백하고 어두운 잡목 숲을 배경으로 서 있는 네 명의 성인은 파노라마를 형성한다. 화면 오른편은 교회의 반석이자 초대 교황 베드로가 대머리였다는 4세기 제롬 성인의 주장대로 그려졌다. 그는 황금색 가운을 걸치고 양손에 서간문과 지상과 천상을 맺고 푸는 금색과 은색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다.

옆에 청록색 의상의 마르타는 루카와 요한 복음서에 헌신적인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코레지오는 프로방스의 지방의 전설을 시각언어로 인용한다. 그녀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행하던 중 론(Rhône)강의 식인 괴물, 타라스크(Tarasque)를 만난다. 성녀는 십자가에 의지해 성수를 뿌려 마비시킨 식인 괴물을 밟고 서있다.

슬픈 감정을 고양시키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자태는 숭고하고 고결하다. 죄 많은 여자이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성녀는 기름 단지를 들고 있다. 신성과 기적으로 유명한 6세기의 레오나르도는 은둔의 삶을 산 수도사이다. 그는 하느님께 죄수와 포로들의 자유와 해방을 간구하여 그 기도와 청원에 응답을 받았다. 관람객은 기도로써 기적의 은사를 이루며 성인의 지물이 된 족쇄를 본다.



〈성 베드로, 마르타,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레오나르도〉유채화, 1515년, 221.6x161.9 cm

코레지오는 거대하고 위대한 16세기의 제단화에 다른 시대를 살았던 4명의 성인을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그가 선호하는 예술적 성향과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난감한 주제였으나 완성작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는 한 공간에 주문자가 요구한 성인들에게 제단화로서의 예우와 개별적인 특성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화면 전체를 아우르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중하게 연구한 성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자세와 몸짓으로 대칭성을 유지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각각의 성인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감정과 교묘한 움직임의 정교한 표현은 신비롭고 저항할 수 없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남겨졌다. 비록 코레지오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심오한 영성이 반영된 원숙한 화면 구성과 강렬한 빛과 색채는 당대 최고의 회화로서 손색이 없다. 관람객은 화가 특유의 인물 표현방식인 젊고 수줍은 성녀와

성인들의 친밀하고 다정한 모습에 동조한다. 그리고 대담한 시선을 보내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묘한 미소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밀스러운 모나리자의 미소를 연상한다.

코레지오는 평생 종교화를 그리며 위대한 명작을 남겼지만, 에로틱한 분위기의 신화화를 그린 화가로 더 유명하다. 네 명의 성인을 그려낸 풍부하고 섬세한 붓질과 감각적인 에너지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황홀한 종교화로 이어졌고, 18세기 로코코 미술의 표본으로 시대를 초월한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사도들의 교회와 하느님께 순명한 성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과 부활을 증명한다.

그림 속 성인들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과 충만한 삶을 증언하며 전달한다.

지상의 책임자로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권한으로 부여받은 상징, 천국의 열쇠를 든 베드로의 땅으로 향한 시선을 따라 성녀들을 거쳐 점차 올라간 시선은 성 레오나르도와 함께 천상을 향한다. 그리고 모든 뜻은 하느님께 달려있음을 확인한다.



〈이순희 아네스〉
미술 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르네상스 및 현대미술사 전공)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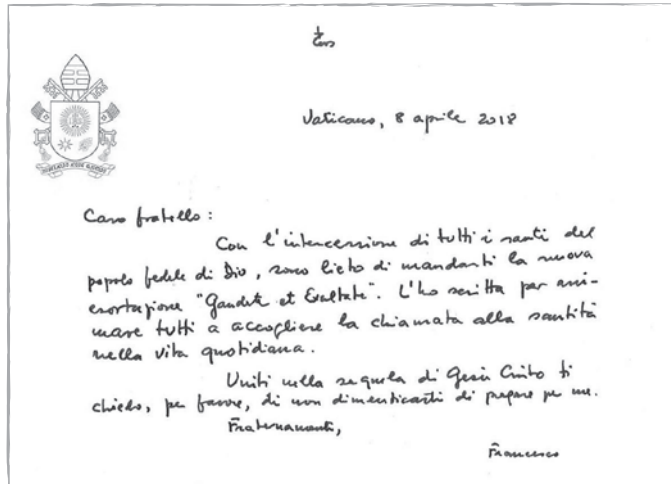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모든 기록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의 친구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저의 새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를 보내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모든 이가 각자 일상생활에서 성덕의 소명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고자 이 권고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나 되어 주님을 따르며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애를 전하며,

2018년 4월 8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

제1장 성덕의 소명

많은 유형의 성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식 인정하는 성인들 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우리 시대의 특징인 순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곧 끊임없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이 부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특히 소외된 이들에 대한 친밀성, 그분의 가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덕은 커다란 도전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혐담을 거부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경청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성덕은 커다란 도전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혐담을 거부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경청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거나 교회의 전례와 교리 등에 관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3장 주님의 빛 안에서

예수님의 행복 선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묘사해 줍니다. 여기에서 “행복”은 “거룩함”과 동의어입니다. 각 행복 선언을 거룩함이라는 말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응대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피하는 법을 아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거룩함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사랑을 변질시키는 온갖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 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제2장 성덕에 대한 두 가지 원수

영지주의와 펠라지우스주의는 교회 초기부터 두 가지 그릇된 성덕의 형태였고, 여전히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영지주의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사랑으로 완덕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고 정보 또는 지식으로 도달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영지주의는 지성을 육신에서 분리시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차가운 논리로 격하시킵니다. 영지주의가 지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펠라지우스주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의 의지를 순수하고 완전하며 전능한 것으로 여기고 은총은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제4장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징표

오늘날 특별히 의미가 있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다섯 가지 표현 형태로, 인내와 온유함, 기쁨과 유머 감각, 대범함과 열정, 공동체성, 그리고 지속적 기도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영적 투쟁, 깨어 있음, 그리고 식별

악은 성경의 가장 첫 장부터 등장합니다. 우리는 악마를 미신,

비유적인 말, 또는 하나의 생각으로 치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록함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은 끊임없는 투쟁이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 미사 거행, 성체 조배, 화해 성사, 자선 활동 등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기록함의 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 세상의 정신이나 악한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에게서 오는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성과 일반 상식과는 다른 식별로 할 수 있습니다. 식별이라는 선물은 오늘날 그 어느 것보다 더욱 필요합니다. 식별은 은총입니다. 식별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청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과 다른 이들,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현실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는 하느님의 초대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을 식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주님과 참된 대화를 나누는 대화 안에서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언어를 더욱 잘 이해하고 우리가 받았다고 믿는 영감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며, 우리의 걱정을 차분하게 만들고, 하느님의 빛 안에 우리가 새롭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침묵 가운데 긴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고자 우리 삶 안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열렬한 갈망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빕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 요약(www.cbck.or.kr)



구역 임원 교육



4월 구역 임원 교육이 34 명의 구역봉사자와 구역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8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백인현 주임 신부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성경 말씀(루카 24,35-48)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 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각자 그리스도가 되어 희생과 봉사의 신앙인이 되자"고 말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구역부에서 계획하는 5월 장터 한마당에 대한 설명과 각 구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요청이 있었다. 또한 구역별 건의사항 접수 및 지난 달 건의사항에 대한 사목회의 답변을 전달하고 소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2018년
제10회 미 동중부

성령대회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에제 1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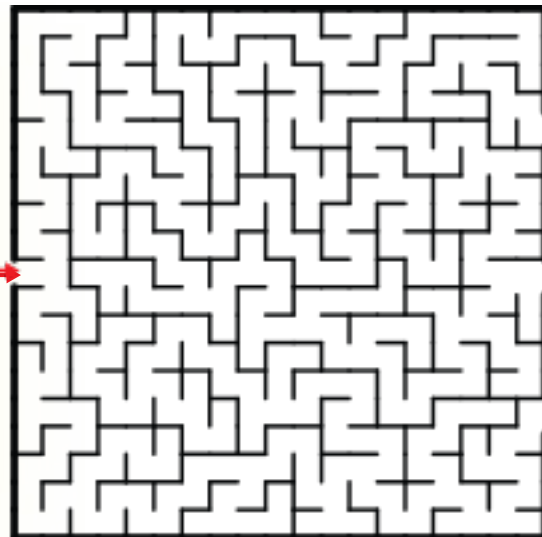
- 강사: 박효철 베네딕도(청주교구 성령쇄신 지도 신부)
- 일시: 5월 27일(일) 1:30pm~9:00pm
28일(월) 9:00am~5:00pm
(Memorial Weekend)
- 장소: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St. Paul Chung Korean Catholic Church
- 회비: \$30.00(5월 14일까지) / \$40.00 (15일 이후)
- 문의: 미 동중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443) 520-4420
- 신청: 안진이 제올지아 (703)216-5792

지도신부 김종성 베드로, 미 동중부 사제단
주최: 미동중부 성령쇄신 봉사회

Third Sunday of Easter April 15, 2018

Luke 24: 35-48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the two disciples thought
he was a ghost.
To show them that
He was really alive,
Jesus asked for something to eat.
What did they give him?



ANNOUNCEMENT

1. Jr. High BASH 2018

**April 15 is the last day to sign up.
Stop by CCD Office today to register!**

- **When :** Saturday, Apr.21
- **Where :** Bishop O'Connell High School
- **Who :** All 6th-8th graders are welcome
- **Mandatory requirement for Confirmation candidates**
- **Cost :** \$10 per participant
- **Registration :** Mar. 25-Apr. 15(Sundays)
at Sunday School Office

2. Collecting CRS Rice Bowl is underway.

- Please turn in to your homeroom teachers by April 22, 2018.

3. First Communion Class Pilgrimage

- **When :** Saturday, April 28, 2018
8:30am - 3pm
- **Where :** Franciscan Monastery
in Washington, D.C.
- **Detailed information is forthcoming**

4. SERVE 2018 Camp

(Formerly known as Jr. High WorkCamp)

- **When :** July 8 Orientation (6:15pm to 8pm)
July 9 - July 11, 2018 (8:30am to 8pm)
- **Who :** Open to all rising 7th to 9th graders
(Limited Spaces Available)
- **Where :** St. Leo the Great Catholic Church
(3700 Old Lee Highway, Fairfax)
- **Registration :** Sundays, 10am to 1:30pm
- **Registration Fee :** \$50 per participant
- **We are in need of Adult Crew Leaders as well as High School Helpers.**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Clare),
CCD Assistant Principal at **(703) 371-3589**
or email spc15.re.admyc@gmail.com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루카 24,15-16)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시어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영광이며 죄와 죽음, 미움과 이기심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김옥순 수녀〉

말씀
묵상

1 하상회

• 일시 : 4월 15일(일) 오전 11:30(B-3,4)

2 안나회

• 일시 : 4월 15일(일) 오전 11:30(A-1,2,3,4)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4월 15일(일) 오후 1시(B-3,4)

4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4월 15일(일) 오후 1시(B-1,2)

5 사도 임원회의

• 일시 : 4월 20일(금) 오후 8시(B-1,2)

6 부활과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김밥 판매

• 일시 : 4월 22일(일) 8시, 10시 미사 후
•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선교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 진행됩니다.

7 대학교 방문 미사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님 집전)

• V Tech(Virginia Tech) 대학 - 4월 19일(목) 오후 5시
• UVA(University of Virginia) 대학 - 4월 20일(금) 오후 4:30
• 문의 : 한승진 아네스 (703)470-2171

8 복사단 모임

• 일시 : 4월 22일(일) 오후 12:40(B-1,2)

9 요한회 모임(50대 교우)

• 일시 : 4월 22일(일) 오전 11:30(B-2)

10 교육부 세미나

• 일시 : 4월 22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일자리 내용과 취업준비
• 강사 : 고찬 예로니모(경제학/공학박사)
• 대상 : 학부모, 진학을 앞둔 학생, 취업을 앞둔 준비생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11 제2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봉사부/K of C 주관)

• 초, 중, 고 에세이 콘테스트 장학 기금 마련 골프대회입니다.
• 일시 : 4월 22일(일) 오후 12:30
•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376-1372

12 CYO Lock - In

• 일시 : 4월 27일(금) 오후 7시-4월 28일(토) 오전 9시(친교실)
• 대상 : 9학년 - 12학년
• 문의 :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703)627-0799

13 유아세례

• 일시 : 4월 29일(일) - 본당 행사 관례로 4월 29일로 변경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 4월 25일(수)까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임산부 태아 축복식

• 일시 : 5월 6일(생명주일) 10시 미사 중
•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부모들을 격려하고 어머니 몸 속에서 자라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신청 : 4월 29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5 2018년 아시아 태평양계 성도 성지순례

• 일시 : 5월 5일(토) 오전 11시 성당에서 출발
• 장소 : 워싱턴 D.C National Shrine
• 등록 : 친교실(선착순), 차편/점심 제공
• 문의 : 허진 (703)376-1372

16 불우이웃 돕기 야드 세일

• 일시 : 5월 12일(토), 5월 13일(일)
• 장소 : 성당 친교실 / 주차장
• 물품 기증 : 4월 8일 - 5월 6일(친교실)
• 문의 : 김진석 마지아 (703)314-0905

17 2018년도 여름 하상 한국학교 교사, 자원 봉사자 모집

• 수업 기간 : 2018년 6월 25일 - 8월 3일(6주간)
(월-금 오전 9:30-오후 3:30)
• 모집 대상 : 1. 한국어 / 특별활동 교사
(사물놀이, 전통음악, 요가 등)
2. 보조 교사 및 자원 봉사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교사 지원서 1부
• 문의 : 교감 (703)598-5540/
이메일 : oyook315@gmail.com

18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주최 건강 검진의 날

• 일시 : 4월 21일(토) 오전 9시-오후 2시
• 장소 : 본당 친교실
•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갑상선, 소아치과 등의 검사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 문의 :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240)683-6663 / (703)354-6345

19 동유럽 성지순례(독일, 벨자움,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재속 프란치스코 주최

• 일정 : 10월 5일(금) - 10월 20일(토)
(조상연 스테파노 수도신부님, 황성국 사베리오 수사님 인솔)
• 문의 : 한기남 데레사 (703)425-9445, (703)674-6081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부활 제3주일 : 2사무 21-24, 요한 3장**

KACM TV 하이라이트

4월 19일(목) 오후 5:00-6:00
4월 20일(금) 오후 8:00-9:00
4월 22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집/반세기의 항해** : 1960년대 브라질로 떠난 한국의 가톨릭 이민단. 신앙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땀과 눈물의 이야기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4월 8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주일헌금 \$ 7,980.00
교무금 \$ 13,09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5,520.00
특별헌금 \$ 1,360.00
2차헌금 \$ 0.00
합계 \$ 27,95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황님의 4월 기도 지향

일반: 경제 분야 책임자들을 위하여

경제 전문가들이 용기를 내어 모든 배척의 경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방법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 신자,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양보합니다.

< 주차장 ↔ 성당 간 셔틀버스 시간표 >

주차장 → 성당 오전 7:20 - 7:50 (매 10분 간격)
오전 9:20 - 9:50 (매 10분 간격)
성당 → 주차장 오전 11:15 - 11:45 (매 10분 간격)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혁(발바라), Thomas Byrne, 정명균(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재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겸(모니카), 김 루시아,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강애자(카타리나), 백명수(마리아), 고필순(제마), 김정희(요셉), 권진혁 (요한), 전길두(베드로), 조동훈(아브라함), 황수현(바오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멜릭스), 윤복창(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예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 이나시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4월 15일(일)	부활 제3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꼬미시움(오후 1시, B-3,4), 베드로회(오후 1시, B-1,2)
16일(월)	부활 제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7일(화)	부활 제3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성령기도회(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18일(수)	부활 제3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19일(목)	부활 제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대학교 방문 미사(VA Tech)
20일(금)	부활 제3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대학교 방문 미사(UVA), CLC(오후 8시), 사도 임원회의(오후 8시, B-1,2)
21일(토)	부활 제3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하상관), Jr High Bash, 한인 복지센터 건강검진(오전 9시-오후 2시, 친교실)
4월 22일(일)	부활 제4주일	요한회 모임(오전 11:30, B-2),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30, 하상관),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골프대회(오후 12:30, South Riding Golf Club)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갈아드리(무료견적) 배석범 (일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혜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들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주일미사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